



##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

박재현

문화 에디터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 건축가로서 화가로서 16세기 유럽 전체에서 사랑을 받았다. 미켈란젤로에게 명성을 안겨준 첫 번째 작품이 〈피에타〉다. 이 작품은 그가 23살 때 조각한 성모 마리아와 예수의 군상으로 성모 마리아의 얼굴과 주름진 옷자락이나 축 늘어진 예수의 시신 등은 그리스 조각에서 영향을 받아 사실적인 표현했다.

피에타라는 말은 경건을 뜻하지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작품을 보면 피에타라는 말의 뜻을 알지 않아도 저절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성모의 모습에서 죽은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어머니의 슬픔을 누구라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는 산 디오니지 추기경의 주문을 받아 피에타 작품을 제작하게 되는데 피에타는 마리아가 아들의 시신을 매장하기 전에 잠시 무릎 위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장면을 말한다.

성서 이야기 중에 이 장면은 가장 비감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성모이기 이전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애는 듯한 슬픔은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을 샘물처럼 적셔 놓을만한 주제다.

미켈란젤로는 피에타라는 어려운 주제지만 작품을 제작해 보고 싶었던 차에 추기경

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의뢰를 받기에 이른다. 그는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된다. 대형 조각상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2미터가 넘는 대리석을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문제였다. 먼저 점토 모형으로 제작하고 대리석으로 옮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미켈란젤로는 성모의 슬픔과 비애를 자연스러우면서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성모의 얼굴에 표정을 실어 넣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예수가 죽을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오십이 넘어 젊은 예수의 시신을 어떻게 무릎 위에 앉히는가가 가장 어려우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미켈란젤로는 정통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예수를 마리아 무릎에 눕히는 방식을 택했다. 그 이유는 마리아의 품과 무릎은 교회의 제단을 상징하고 예수는 제단에 받쳐지는 제물을 상징하기 때문이었다. 교회의 의미를 상징하기 위해 그는 마리아의 오른손은 예수의 상체를 받쳐 들게 하고 왼손은 바깥으로 뻗어 있게 제작했다.



〈피에타〉-1498~1499, 대리석, 높이 171, 로마 베드로 성당

〈피에타〉 조각상을 보고 어린나이의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미켈란젤로는 그 말을 듣고 성모 마리아의 가슴에 두른 띠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이 작품이 그가 사인한 유일한 작품이다.

2년 동안 피에타에 매달린 끝에 미켈란젤로는 완성을 하였지만 산 디오니지 추기경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약속받은 대금을 지불받지 못한다. 재료비는 물론 완성된 〈피에타〉조차 가지고 올 경비조차 없었던 미켈란젤로는 베드로 성당 구석에 세워 놓은 채 피렌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조각가로서 명성을 쌓고 있었던 미켈란젤로는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의 특별한 부탁을 받게 된다. 시스티나 소성당의 천장 벽화를 제작하라는 의뢰였다.

‘나는 회화가 조각을 닮을수록 좋지만, 조각은 그림을 닮을수록 싫어진다. 조각은 회화를 비추는 햇불이다.’ 라고 스스로 조각가라고 말했지만 신앙심이 깊었던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미켈란젤로의 불후의 명작 〈최후의 심판〉의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작품은 1536년 시스티나 천장화 〈창세기〉를 완성한지 25년이 지난 후에 제작했다.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의 죄를 가려 선한 자는 천국으로 악한 자는 지옥으로 보낸다는 내용을 그린 작품으로서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천국을 상징했던 전통적인 소재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인물 중심으로 천국을 표현해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

미켈란젤로는 공간과 시간적 배경을 무시한 채 동일한 하늘을 배경으로 떠 있는 인물들을 그리면서 영웅적인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에 치중을 했다.

거대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야하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리 위해 만들어 놓은 선반에서 일과 수면을 함께 취해야만 했다.

프레스코 기법이란 젖은 석회 위해 물감을 입혀 그리는 기법으로 화가는 석회가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려야 한다. 프레스코화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한번 그려 놓은 그림은 수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제작할 때 사람들에게 ‘나는 좋은 곳에 있지도 않고 화가도 아니다.’ 라고 불만을 토로했을 정도였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작품에는 400여명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성인과 사도에 둘러싸인 그리스도가 이 작품의 구심점이다.

이 작품에서 황금빛 후광이 비추는 옥좌에 앉은 그리스도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른손을 들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눈길을 주고 있는 성모는 왼쪽에 앉아 있

다.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전형적인 그리스도의 포즈다.

이 작품에서 수염도 없이 잘생긴 근육질의 젊은 남자로 묘사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다. 미켈란젤로 이전의 그려진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아래 일곱 명의 천사들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나팔을 불며 알리고 있다. 다른 천사들은 묵시록을 읽고 있다.

화면 맨 오른쪽 하단에 큰 뱀이 몸을 감고 있는 인물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신 하네스의 재판관 중에 하나인 마노스고 배 위에서 노를 잡고 있는 사람이 카론이다.



〈최후의 심판〉-1537~1541, 프레스코화,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최후의 심판〉이 완성됐을 때 인물들의 나체상을 본 사람들은 목욕탕에나 어울리는 그림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미켈란젤로는 사람들의 비난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성스러운 성당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철거를 요구하는 비난의 소리가 거세지자 교황 파울루스 4세는 프레스코 벽화를 철거하기 보다는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 화가 다니엘레 다 볼테라에게 이 그림속의 나체의 인물들에게 옷을 입히는 작업을 맡겼다. 그 이후 요하네스 파울루스 2세가 이 작품을 복원했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1475~1564)는 가난한 귀족 출신이지만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가 기롤란다요에게 도제수업을 받았으며 1년 후에는 조각가 베르톨도 조반니에게 조각을 배웠다. 그 후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시대에 최대의 예술 후원자였던 메디치 가문 치하에 있던 공방에서 일하면서 미켈란젤로는 탄탄대로에 들어섰다.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아버지는 아들이 귀족이기 때문에 석수를 시킬 수 없다며 반대한다.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알아 본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는 아버지를 세관원으로 취직을 시킨 다음 미켈란젤로를 차지할 수 있었다.

미켈란젤로의 예술성은 당대에도 인정을 받았지만 괴팍한 성격 탓에 교황을 비롯한 귀족들과 사이는 좋지 않았다. 그는 상냥하지도 않았으며 생활방식에도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심지어는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관심을 끌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례해 친구도 별로 없었다.

또한 격식에 구애도 받지 않았던 미켈란젤로는 로마에 입성할 당시에도 의무사항이었던 궁중복조차 사 입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성공한 예술가들 사이에 유행하던 호의호식도 누리지 않았다. 오로지 작업에만 몰두했다.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나치게 가족들을 사랑해서다. 미켈란젤로의 아버지는 물론 형제들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그가 성공하자 가족들 모두 경제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조각, 회화, 시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한다. 특히 그는 시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고뇌에 대해 남겼다. 생전에 신화가 될 정도로 예술적 경지를 인정받았던 미켈란젤로는 고대 예술을 부흥시킨 르네상스 예술의 정점에 있지만 한편으로 그는 르네상스 예술의 쇠퇴기를 함께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 